

# 신설법인 7629개 ... 호남권은 감소율 1위

### 전년비 광주 15%·전남 10% 줄어...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전국 제조업 전년 동월비 10.8%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전국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광주·전남지역은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경기침체도 깊어지면서 창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고 전국에서 창업자가 늘어난다는 상황에서도 정작 광주·전남은 적박한 창업환경 탓에 창업기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2월 신설법인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로 들어선 법인은 7629개로, 지난해 2월보다 2%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지역 신설법인은 242개로 전월 337개와 비교해 28.2%나 줄었고, 지난해 동월(286개)에 비해서는 15.4%가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전에서 그만큼 광주에서는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지역은 지난 2월 신설법인이 267개로 전월(373개)보다 28.4%나 감소했다. 또 전년 동월(297개)과 대비해서도 10.1% 감소하면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사정도 만만치 않다. 전북은 지난 2월 신설법인이 241개로 전월(316개)보다 28.7% 줄었다. 또 전년 같은 달(268개)

에 비해서는 10.1% 감소해 전남과 나란히 전국 2위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지역만 신설법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와 전남, 전북이 나란히 1위·2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호남지역의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매달 신설법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지난해 11월 신설법인 감소율이 19.9%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고 12월에도 9.2%가 줄었다. 지난 1월에도 10.8% 감소했다. 전남의 감소율은 지난해 11월 1.6%에서 12월 15.6%로 더 높아졌고 올해 1월에도 5.1%를 기록했다.

이처럼 호남지역의 신설법인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이유로 '최악의 창업·벤처생태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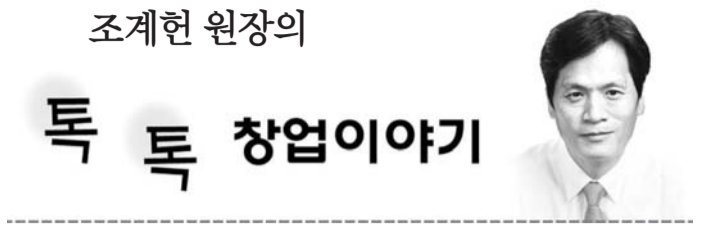
표한 '2018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47.7%가 서울·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광주·전남을 비롯, 제주까지 포함하는 호남권 벤처기업은 전국의 6.1%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는 대전·세종·충청·강원 24.3%, 부산·경남·울산 12.4%의 절반 수준으로, 대구·경북(9.5%)보다도 낮다.

특히,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6만2000명으로 삼성 등 5대 그룹의 종사자 수(75만600명)를 웃돌고 있고, 벤처기업의 평균 종사자도 21.7명으로 전년(20.8명) 대비 4.3%(기업당 0.9명) 증가하는 상황이다.

벤처기업이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이 적은 호남지역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성공확률 높이는 창업유형 알아보기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노력했다는 걸 알아둬" 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한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명작 TV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에서 귀엽게만 보이던 주인공 푸가 브라운관 밖의 세상에 던진 인생명언이다. 나태함으로 인해 창업실패를 하는 창업자들도 많으니 성공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이 참고하기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창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일반적인 성공확률 보다 훨씬 높은 성공확률을 보이는 유형들이 있다.

그런 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느 한 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해당 업종으로 창업에 나서서 본업 연결형 창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창업자가 이미 그 업종에 대해 상당히 전문가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가장 이상적인 창업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인해 창업하려는 업종에 최소 몇 개월은 직접 현장체험을 하는 기간을 갖으라고 권하는 창업컨설턴트들이 많은 것이다.

두번째는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는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창업의 형태인 인수창업의 유형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기존 운영노하우와 고객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창업의 형태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창업형태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가 다소 높은 것이 흠이라든 흠이다. 그럼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최소화된 유형이라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창업유형이다. 하지만 해당 점포의 매출이 하향곡선을 크게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매출만 보고 인수를 했다가 결국 무너지는 사례도 많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는 전체적인 가맹점의 안정적인 매출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가맹창업을 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고객과 예비창업자가 선호하는 스테디셀러형 브랜드와 최근 급격하게 떠오르는 다크호스형 브랜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울드 브랜드의 특성상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된 안정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 보다 창업비용 대비 매출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다.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유희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 검증기간이 짧아서 자칫 단기 흥행에 멈추는 유행아이템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네번째는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의 현직 자영업자 또는 경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창업하는 전수창업의 유형이다. 이런 경우는 전수자의 내공과 실력 그리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창업과정과 오픈 이후 운영과정에서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일종의 유료 멘토형 창업형태인 전수창업은 단순히 전수만 받는 수준에서 그치는 소극적인 형태 보다는 해당 전수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우는 적극적인 형태의 전수창업이 성공확률을 더 높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창업에도 어찌 보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창업방법이 있어도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성향이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성공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만, 성공확률이 높은 창업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우선시 하는 전략은 분명 성공확률을 끌어올리는 관건은 선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강소벤처기업 일자리박람회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강소벤처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일자리창출지원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소외계층 위한 음악교육 힘쓴다

미디어 콘텐츠 아트 그룹 '모달' 사무실 개소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미디어 콘텐츠 아트 그룹 모달(MODAL)이 오는 6일 오후 2시 봉선동(남구 봉선로 79번길 2)에서 개소식을 진행한다.

모달은 버클리음대 출신의 작곡가 김정은 대표,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여성가타리스트 송지아, 필로소피엔터 테이먼트와 필로소피아작곡가카데미를 담당하는 임성엽, 영상촬영 및 편집 담당 장용석을 멤버로 한다.

모달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음악교육 연계,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별 버스킹공연과

## 중기부, 4차산업혁명 예비 창업자 육성

11개 관계 부처 업무협약  
내달 7일까지 400명 모집

4차 산업혁명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 관계부처 11곳, 주관기관 17곳과 합동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문화체육관광부(관광), 산업통상자원부(VR·AR, 신소재,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특허청(빅데이터) 등이 참여한다.

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7개 기관도 함께 한다.

양측은 오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청년 예비창업자 400명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자금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여성 특화, 소셜 벤처, 4차산업 혁명 분야로 구분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b>금강버티컬</b>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박스,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b>진주공방</b>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국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b>초대화랑</b>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b>백세쭈꾸미식당</b>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b>무크광주세정점</b>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볼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b>고흥나루터</b>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빌딩) 허모(참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b>하안나라운동화세탁</b>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클레버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b>그집고기</b>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b>고전방</b>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b>씨브웨이광주충장로점</b>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b>청학철학원</b> 북구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b>양지공인중개사</b>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b>으뜸공인중개사</b> 북구 두암동 동신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b>꼬야전통마사지전문점</b>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안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취 ☎010-9277-2011, 010-4624-8457	<b>기담철학원</b>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b>석당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b>토산철학원</b>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b>국수나무용봉점</b>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b>루팡닭강정</b> 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